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2호 【루게 제23084호】 주제99 (2010)년 5월 12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최첨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김일성총장대학 교원 리기성, 로동자 설원숙,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로동자 류명철은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희천속도》창조자들이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사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무엇을 향양성생 조절성은 최첨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을 성심성의를 원호하였으며 평양고려호텔 로동자 김정희도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운

영애군인의 생활을 친필의 심정으로 돌봐주면서 발전소건설지선에 앞장서고있다.

인민의주시가내측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압록강리판 로동자 최춘선은 혁명가유자녀답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발전소건설에 도움이 될 좋은 일을 찾아하였다.

경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로종일, 청소년과 교양지도국 지도원 박미숙, 로동자 김영순은 배두산선군정년발전소건설에 기여하는것을 공민의 응당한 도로로 여기고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으며 평안북도 판문리판 로동자 윤숙영도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일념안고 보령강리판관리국 로동자 김정애, 평

양시식료련합기업소 로동자 방옥심, 평성윤송사업소 로동자 최봉삼은 온 가족과 함께 배두산지구를 보다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순결한 맘을 바쳐가고있다.

서성구역 상산동 85인민반 손경윤과 그의 안해는 여러차례에 걸쳐 618건설돌격대원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맡겨진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건설기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갈 열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이 광범히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7일과 8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였으며 베이징, 쑤저우, 로닝 등 성, 시를 참관하시였다.

호금도동지는 김정일령도자와 회담을 진행하고 환영연회를 마련하였으며 김정일령도자와 함께 베이징 교외에 있는 박오생물유한공사를 참관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오방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은가보가 각각 김정일령도자와 상봉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정일령도자의 참관과 유관활동을 참가하였다.

호금도동지는 회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령도자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그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중조친선을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고 대를 이어 전해가가는것은 쌍방의 공동의 역사적책임이라고 하면서 중조친선협조체를 공고화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조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추진시키고 쌍방의 공동이익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더 잘 수호하고 촉진시키는데 유리하

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제의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의 친절한 초청과 뜨거운 환대애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역사의 통과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력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중친선협조체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안면생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민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친척적인 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중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쌍방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중조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공동성명의 립장에 따라 반도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6자회담의 유관국들이 9.19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결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하는 조선의 기본립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측은 각국과 함께 6자회담의 제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다시금 조선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호금도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초청을 폐회 수락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방국동지, 은가보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단화를 나누신데 대하여, 방문기간 여러곳을 참관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리포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메이징일보》, 《해방일보》, 《신화매일신문》, 《중국청년보》, 《과학기술일보》, 《경화일보》, 중앙TV방송과 《신민방》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호금도동지를 상봉하시는 사진, 장면 등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고 우와 같은 내용을 특집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CNN방송, VOA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문》, NHK방송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민들속에서》 (88)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최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88)를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감명있게 보여주는 최상실기 19편이 편집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의 아버지로 불이 칭송받은 수령이 없었으며 우리 인민처럼 자기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살아온 인민도 없었습니다.》

최상실기 《수령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농민들이 있었습니까, 《로전에서 진행하신 방식상학》, 《공시협조회를 찾으시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한해 농장방에 계시면서 농민들을 힘드신 일

에서 해방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감동적인 사실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환원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품모를 가슴뜨겁게 전하는 이야기가 최상실기 《세상에 다시 없을 위인》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후 갖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고 부추되는 집집순까지 보내주시였으며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내용이 최상실기 《우리 조합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어》와 《태권도전당에 남긴신 자욱에 담겨져있다.》

도서에는 《〈문제〉는 사색에 달려있소》, 《지질탐사일군의 자각을 심어주시어》, 《물소 찾아

주신 생산장성의 예비》, 《천지개벽된 배우고원생 생각할 때마다》를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일군들이 정치사업, 사관과 사업을 앞세워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신 절세위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최상실기들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변불후의 로고와 최상실기 《우리는 시종일관 평화통일을 주장하고있습니다.》에, 남당명에 고향을 둔 인민군병사가 군부생활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도록 고부해주시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은정이 최상실기 《잊을수 없는 그녀의 당부》에 반영되어있다.

최상실기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어》, 《상업일군의 첫걸음을 떼던 때》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느 한 3대혁명소조책임자를 불러주시고 몸소 수행해야 할 과업을 밝혀주시였으며 농촌마을의 상점을 찾으면서 상업일군들이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일깨워주신 내용들, 《고향 땅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우도록》,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겨》는 청년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기동감들을 키워주시였으며 총련일군의 자녀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었다.

《인민들속에서》 (88)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넘진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동원전을 다그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다하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제의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의 친절한 초청과 뜨거운 환대애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역사의 통과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력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면서 조중친선협조체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안면생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민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친척적인 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중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쌍방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중조 두 나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각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9.19공동성명의 립장에 따라 반도 비핵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6자회담의 유관국들이 9.19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결지하고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리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하는 조선의 기본립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측은 각국과 함께 6자회담의 제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다시금 조선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호금도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초청을 폐회 수락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방국동지, 은가보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단화를 나누신데 대하여, 방문기간 여러곳을 참관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리포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일보》, 《해방군보》, 《광명일보》, 《메이징일보》, 《해방일보》, 《신화매일신문》, 《중국청년보》, 《과학기술일보》, 《경화일보》, 중앙TV방송과 《신민방》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호금도동지를 상봉하시는 사진, 장면 등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고 우와 같은 내용을 특집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뉴욕 타임스》, CNN방송, VOA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오스트랄리아 ABC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문》, NHK방송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핵융합에 성공

우리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핵융합의 성공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파시하는 일대 사건으로 된다.

핵융합기술은 인류가 리상하는 새 에너지개발을 위한 최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하나로서 《인공태양》기술이라고도 한다.

원천이 무진장하고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 한 새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핵융합기술은 오늘 세계과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막대한 투자와 첨단과학기술적도대가 안받침되

여야 하는 이 기술의 개발은 현재 발전되었다고 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시도하고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최첨단을 돌라갈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핵융합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사소한 것까지 동요도 없게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100%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마침내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

설계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력이 마련되었다.

우리의 과학자들이 핵융합에 성공함으로써 새 에너지개발을 위한 돌파구가 확고하게 열렸으며 나라의 최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었다.

태양열을 갖는 뜻깊은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이 거둔 귀중한 성과는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물을 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각지 일군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각지 일군들이 최첨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전선, 자기 초소에서 기적들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키는것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일군들이 최첨발전소건설지원사업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과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과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반관리를 기꺼이 담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며 당원들과 일군들이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합쳐 건설장에 달려와 만사람의 정열을 뜨겁게 고구해주시었다.

그들은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발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일군들은 최첨발전소건설장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을 뜨겁게 고무해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 주시며 언어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높은신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발전소건설자들이 생활상편을 모르고 신심과 용기에 넘쳐 일할수 있도록 많은 생활용품들도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최첨발전소건설장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일군들이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합쳐 건설장에 달려와 만사람의 정열을 뜨겁게 고구해주시었다.

그들은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발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올해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농업전선을 과학연구성파로 추동

농업부문에 파견된 《2월 17 일파학자, 기술자들격대》들에서

농업부문에 파견된 《2월 17 일파학자, 기술자들격대》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농업과학을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의가 앙양되는 속에 1대장종비생산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파견된 《2월 17 일파학자, 기술자들격대》의 투쟁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돌격대에 파견된 농업과학원파와 비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1대장종비생산을 기어 올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성 일군들과의 긴밀한 령계밑에 그 확대도입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각지에 내려간 비연구소의 과학자들과 농업과학원파의 다른 여러 전문화학연구소들과 도농원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1대장종비의 우월성은 최근년간에 실현적으로 뚜렷이 확증되었다. 그에 따라 농업부

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수요가 높아지고 도입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루벌을 광학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파견된 《2월 17 일파학자, 기술자들격대》의 활동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김일성총장대학 계승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황해북도농원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배두산인민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미루벌에서 높은 알곡소출을 낼수 있는 농업생산구조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루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를 바고 돌격대활동을 벌려 이 지대에 알맞은 작물과 품종들을 선정하고 그 재배기술을 완성하며 지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세우는데서 이미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루벌에 파견된 돌격대원들의 투쟁은 황해북도당위원회와 푸산군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더욱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강양이종자기공을 높은 과학적수준에서 공업화하기 위하여 파견된 《2월 17 일파학자, 기술자들격대》활동도 강화되

안변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안변군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튼튼한 벼모를 길러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늘이면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장전 65畝를 갖는 뜻깊은 올해 알곡중추수의 커다란 예미의 하나를 벼모를 튼튼히 키워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찾은 모반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군 일군들은 비산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벼모의 생산상태와 일기조건에 맞게 모반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 다음 그 경험을 다른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변덕스러운 날씨조건에 맞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반관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모반들을 돌아보며 모반관리공들들과 협의도 하고 해당하는 대책도 세워주면서 벼모의 상태에 따라 영랑관리와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

모반관리를 기동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을 명심하고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과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과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반관리를 기꺼이 담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며 당원들과 일군들이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합쳐 건설장에 달려와 만사람의 정열을 뜨겁게 고구해주시었다.

그들은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발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모반관리공들모두의 높은 책임성과 열정에 의하여 모내기를 인정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모반관리를 기동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을 명심하고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과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과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반관리를 기꺼이 담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며 당원들과 일군들이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합쳐 건설장에 달려와 만사람의 정열을 뜨겁게 고구해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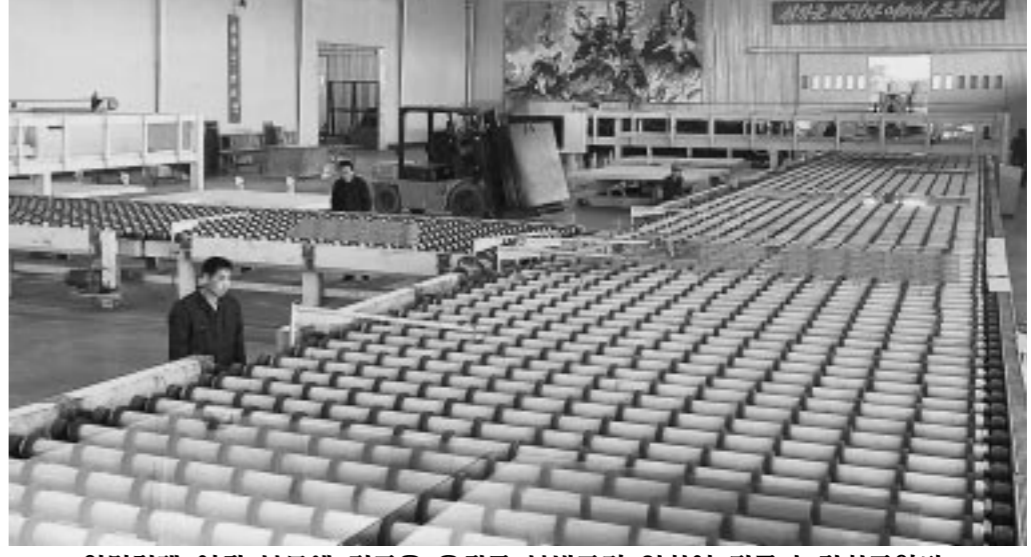
그들은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발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모반관리공들모두의 높은 책임성과 열정에 의하여 모내기를 인정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모반관리를 기동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을 명심하고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과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과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반관리를 기꺼이 담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며 당원들과 일군들이 애국충정의 발걸음을 합쳐 건설장에 달려와 만사람의 정열을 뜨겁게 고구해주시었다.

그들은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하발언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모반관리공들모두의 높은 책임성과 열정에 의하여 모내기를 인정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 좋은 유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내안천선유리공장에서- 본사기자 촬영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전진항을 참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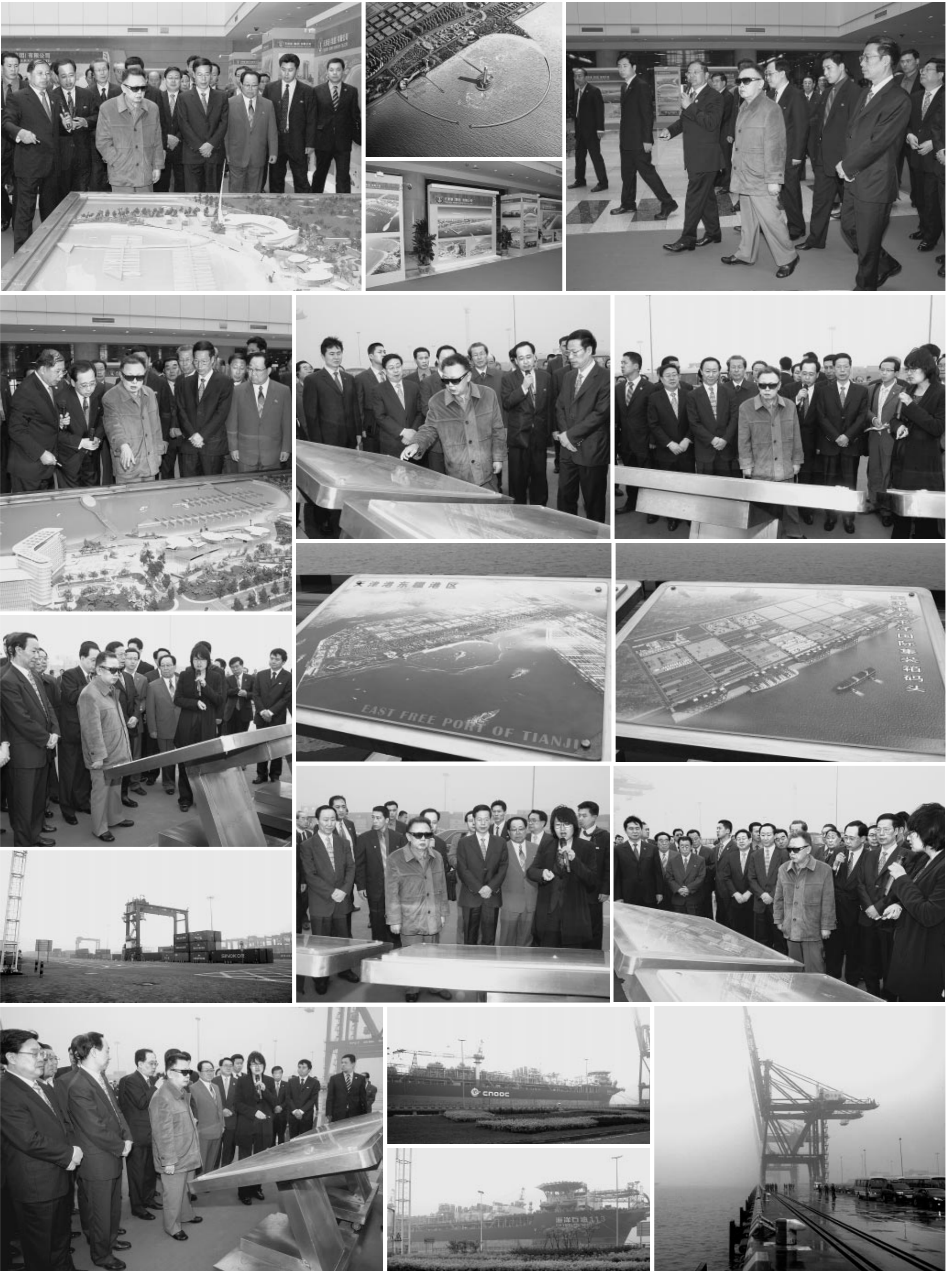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진항을 참관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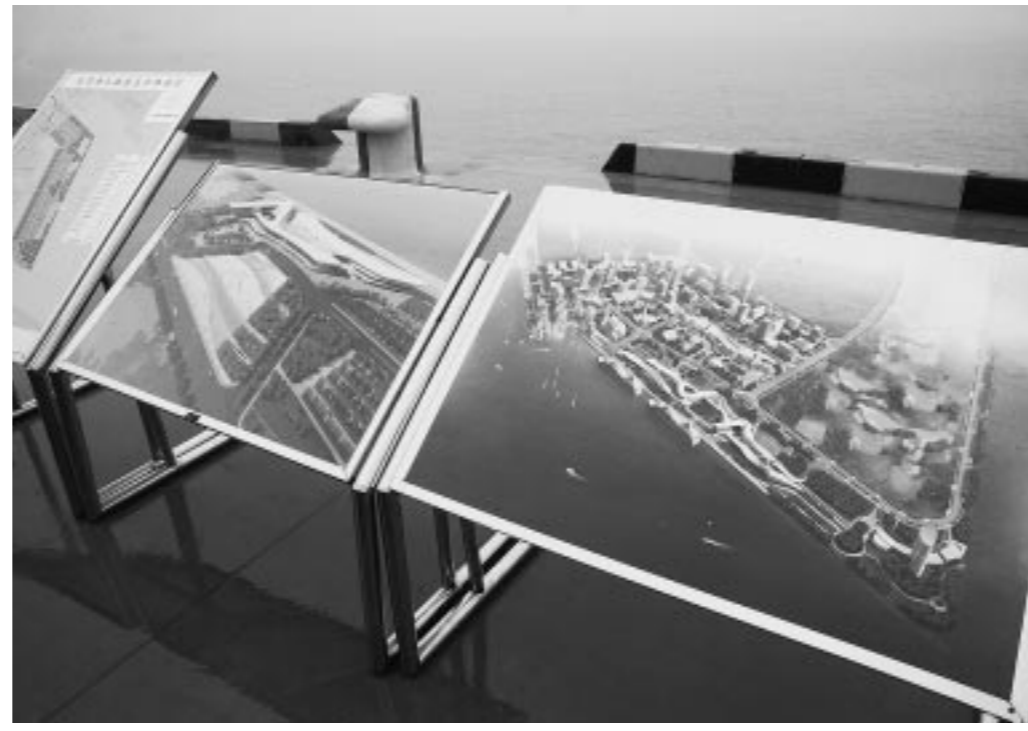
위 대한 령도 자 김 정 일 동 지 게 서 전 진 향 을 참 관 하 시 었 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등 지 개 서 전 진 향 을 참 관 하 시 었 다 .



위 대한 령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천 진 항 을 참 관 하 시 었 다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전진항을 참관하시였다.



전진시의 일부

당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리

연안군 발전협동농장 농장원 오윤근 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당과 인민을 같이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애오라지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진실한 인간, 참된 당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 20여년간 한번 다진 맹세를 변하지 않고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연안군 발전협동농장 농장원 오윤근동무.

많은 간식지를 스스로 일구어 옥담으로 만들었음뿐 아니라 해마다 적지 않은 알곡을 생산하여 나라에 바친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당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야 할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할 또 하나의 본보기로 된다.

부르익은 벼이삭처럼

지금으로부터 스물두해전 어느날이던가, 발산리의 한 마을에서는 농경기를 버리는 소리가 밤이 지새도록 울려왔다.

구슬땀을 흘리며 농경기들을 버리는 사람은 발전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오윤근동무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삼십이여 호미가락들이 무더기 쌓아졌으나 오윤근동무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 좀 쉬고 하세나. 한때 이 많은 농경기들을 버려선 뭘 하려구?》

그를 도와주던 마을의 로인이 하는 말이였다.

《제사야 오윤근동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허리를 폈다. 《제가 좀 쓰러졌어. 아바이, 우리 농장별의 간식지를 개간할 수 없을까요?》

《아마 조런지 않겠네.》 로인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

농경기들을 창고에 가져다 넣은 오윤근동무는 집을 나섰다. 새벽녘개울에 잠긴 농장길을 지나 오래전에 생겨난 특수에 올라서니 드넓은 간식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오윤근동무

는 간식지결을 매없이 지나가곤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 발을 들여왔다가 말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 야만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결처 돌아왔다.

《내가 무슨 생각을... 따듯이 꼭 안아키워준 당의 은덕에 리당원회들을 찾아갔다. 《제가 일군 땅을 농장의 부침때로 등록하고 거기서 주된 곡식은 나라의 쌀속에 넣어 주시지요?》

《그때부터 얼마후 발산리사람들은 간식지의 또 다른 곳에서 개간작업에 달라붙은 그를 보게 되었다. 하여 이듬해 또 다시 4 0 0 0명의 간식지를 새로 개간한 그가 다음해에는 전례의 표절이나 되는 땅을 개간할 목표를 세웠을 때 농장원들은 놀라워하였다.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개간하니? ! 누가 지시를 준 일도 없고

수록 오윤근동무는 굳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였다. 자기 한몸을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간식지를 일구자고.

하여 그는 개간작업에 쓸 농경기들을 마련하는데 달라붙었던 것이다.

《내 너를 꼭 기르든 옥담으로 만듭시다.》

아득히 펼쳐진 간식지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웅얼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 밤 간식지에 나오곤 하였다. 고요한 밤을 벗삼아 그는 갈망속에 뒤엉킨 갈뼉리를 뽑아내고 큰 조가비며 돌들을 주어내었으며 주변의 흙을 파다가 논둑도 튼튼하게 쌓아나갔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해 가을 그가 개간한 1 7 0 0명의 간식지에는 벼이삭들이 누렇게 익었다.

벼수확을 끝낸 오윤근동무는 리당원회들을 찾아갔다.

《제가 일군 땅을 농장의 부침때로 등록하고 거기서 주된 곡식은 나라의 쌀속에 넣어 주시지요?》

《그때부터 얼마후 발산리사람들은 간식지의 또 다른 곳에서 개간작업에 달라붙은 그를 보게 되었다. 하여 이듬해 또 다시 4 0 0 0명의 간식지를 새로 개간한 그가 다음해에는 전례의 표절이나 되는 땅을 개간할 목표를 세웠을 때 농장원들은 놀라워하였다.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개간하니? ! 누가 지시를 준 일도 없고

국가계획도 아닌데 적당한 일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억척스럽게 일을 다그쳤다.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앞에 내 스스로 맹세하지 않았던가. 이제 열명만 더! 아니 스무 명만 더!》

이렇게 순간순간 자신을 체찍하며 조국의 재부를 한치 한치 늘려온 오윤근동무,

지난 20여년간 그의 땅은 1만 6 8 0 0평에 달한다.

빛나는 삶의 자욱

지난해 10월 평양에서는 제2차 전국순군시대공로자대회가 진행되었다. 뜻깊은 그 대회에서 토론을 한 사람들이 그때는 오윤근동무도 있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토끼를 마치고 대회장의 높은 연단을 내려는 그에게로 추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날도 오윤근동무는 간식지에는로의 《저녁출근길》에 나갔다. 이때였다. 안해가 마주 달려오며 소리쳤다.

《벼들이 시들어가고.》

《취리구?》

황황히 달려가보니 일을 축 늘어뜨린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발바닥, 새벽마다 얼마나 애써 가꾸어온 모듬인가. 그 소중한 모듬이 죽어가다니...

다리째이 스트로 푸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지만 그는 혼연히 말했다.

《원인을 찾아보지요.》

답이없고 간식지에는 다분히 남아있는 소금성분이 어린 모

1만 6 8 0 0평, 우리의 드넓은 사회주의대지에서 그것은 비록 작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숨배인 한 농장원의 총정감과 도덕의의의 세계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웠던가.

우토로 전변된 간식지는 울라 뒤덮으며 해마다 알알이 무르익는 벼이삭들.

자기를 풀어자매를 고이마는 땅을 향해 머리를 깊이 숙인 그 모습은 어머니당의 품을 우려려 언제나 감사의 끈결을 드리며 보람의 한생을 살고있는 오윤근동무의 진정대오였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변함없이 이어온 20여년이

그날 밤은 일인들 없었

라. 억수로 쏟아지는 소나비에 눈물이 터질새라 논란을 지켜 지새는 밤은 얼마이더 때이

대 내린 우박에 넘어진 벼대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나하나 일으켜세운 새벽들과 마가

을날 저수지물이 범람한 논판에서 배어낸 벼를 마를로 몇몇의 석역어고 물속에서 헤엄치며 풀어진 저녁들은 또 얼마

우며 뛰어다녔다.

비모들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을 때 오윤근동무는 웃고

있는 눈물을 남몰래 닦았다.

농장에서 얼마간 떨어진 저수지안에 설치된 솟은 빈땅을

개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간것은 또 어느때말이

었던가.

수천평이나 되는 그 땅을 논으로 개간하고 양수기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것을 확신한 오윤근

동무는 자체로 양수기설치에 필요한 부분품들도 마련하고 양수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

재들도 모아냈다. 그러느라 어떤 날에는 온몸이 쭈서 윤신

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땅을 걸구는 일을 순간도 중단하

지 않았다.

혁명의 전세대들이 그 한치한 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내 귀중한 땅, 바로 거기에 성실한 땅을 묻고 뜨거운

정성을 바쳐 가꾸는것은 이 나라 농민으로서 누구나 응당 해야 할 본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변함없이 이어온 20여년이

그날 밤은 일인들 없었

라. 억수로 쏟아지는 소나비에 눈물이 터질새라 논란을 지켜 지새는 밤은 얼마이더 때이

대 내린 우박에 넘어진 벼대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나하나 일으켜세운 새벽들과 마가

을날 저수지물이 범람한 논판에서 배어낸 벼를 마를로 몇몇의 석역어고 물속에서 헤엄치며 풀어진 저녁들은 또 얼마

우며 뛰어다녔다.

비모들이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을 때 오윤근동무는 웃고

있는 눈물을 남몰래 닦았다.

농장에서 얼마간 떨어진 저수지안에 설치된 솟은 빈땅을

개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간것은 또 어느때말이

었던가.

수천평이나 되는 그 땅을 논으로 개간하고 양수기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것을 확신한 오윤근

동무는 자체로 양수기설치에 필요한 부분품들도 마련하고 양수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자

재들도 모아냈다. 그러느라 어떤 날에는 온몸이 쭈서 윤신

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땅을 걸구는 일을 순간도 중단하

를뿐인데 그땀투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그 사랑과 믿음의 한없이 고마와 오윤근동무는 그해부터 더 많은 간식지를 개간하였다.

쌀로써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한마음안고 낮이나 밤이나 헌신의 구슬땀을 바

쳐가는 그의 일을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적극 떠

어주고 도와주었다. 농장에서

는 간식지농사를 전문 맡아보는 분조를 따로 내고 오윤

근동무를 분조장으로 임명하였다.

해가 바뀔수록 그의 생활에는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 더욱 따스하게 비추었다.

어머니당에서는 그를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도 불러주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

게 되었다.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새해를 맞으며 그

어느날 아침이었다. 눈수령고무기를 하느라 온몸이 강

투성이가 되다싶이 한 그날

당직임원군이 찾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해 동안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여

은 동무에게 친히 감사를 보내주

시였습니다.》

오윤근동무는 한동안 망연히 서

있었다.

군당책임원군이 다시 말해서

아 그는 그 몸같은 일이 사실

임을 깨달았다.

순간 그는 오열을 터지쳤다.

당과 조국의 덕만 입는 인간으로 살수 없어

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시었다.

영광과 행복은 가슴부풀었던 날들 가운데는 그가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날도

있었다.

정녕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대오에 설친을 얼마나 절절히 소원하였던가. 하지만

받아안은 당의 은덕에 비하면 한 일이 너무 적은것만 같아

선뜻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

그였다.

입당하던 날 오윤근동무는

성스러운 당기발앞에서 이렇게 굳게 맹세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쌀로써 받드는 길에 이 심장의 마지막

박박동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오윤근동무에게 제2차 전국순군시대공로자대회의 연단에서 온 정열을 향하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운명의

기둥은 어버이장군님이시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

어 우리의 애국의 발걸음은 나날이

역세여지고 보람찬 삶이 꽃피어

나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오윤근동무 (가운데)

주작봉마루에 넘치는 꽃향기

내각사무국 김은주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세대 청년들속에서뿐만 아니라 세대 청년들속에서도 나라 새대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

행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성산혁명렬사들의 한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앞에는 향기로운 꽃송이들이 정취를 풍겼다. 그것은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동시에 투사의 생일이기도 하였다.

이날에 투사의 반신상앞에는 혁명이 바친 선렬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추억하는 20여명의 처녀들이 서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투사동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축하의 꽃송이를 받아주시시오. 투사동지가

그처럼 사랑하던 조국의 전당배도 함께 안고왔습니다.》

그들은 김은주, 권혜정, 황옥향, 박인실, 리은복, 고은동

동무를 비롯한 내각사무국 청년동맹원들이었다.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늘 대성산혁명렬사들을 찾게 하였던

가. 그들이 안고온 아름다운 꽃송이들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에

실린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지난해 초 어느날 김은주동무는

기관을 일꾼들, 종업원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들을 찾았다.

반신상대위에 새겨진 투사들의

난남이든 전사한 날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올랐다.

《나와 같은 꽃나시절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전에 나섰고

그집에서 일절혈육도 남기지 못

하고 떠나간 투사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김은주동무는 김은주동무는 대

성산혁명렬사들로부터 향하였다.

그날은 한 항일혁명렬사가 전사

한 날이었다. 이른아침 투사의

반신상앞에는 한 처녀의 소중한

마음, 순결한 도덕의리의 향기가

질게 풍기는 꽃송이들이 정취를

풍겨놓았다. 며칠후에는 20여명의

처녀들이 주작봉으로 올랐다. 김은주동무와

마음을 합치며 너도나도 펼쳐나선

집단의 청년동맹원들이었다. 그때로부터 국가적기념일들

은 물론 추석날과 항일혁명렬사들의

생일, 전사한 날들마다에 주작봉마루로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안고 찾아오는

처녀들의 발걸음이 백수십차례나

세차게 울려왔다.

비바람처럼 날 우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비웃고 우산으로 꽃송이들에서

꽃잎이 하나라도 떨어질새라 지성을

바치곤 하던 처녀들.

추석날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른아침이면

손에손에 꽃송이를 들고 대성산혁명렬사들의

충계를 오르곤 하던 처녀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시대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보여준 내각사무국 청년동맹원들의

소행은 해아리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주작봉마루에는 오늘날 김은주동무

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이 심장으로

피워가는 꽃송이들이 놓여지고있다.

항일혁명렬사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를 전하며. 사람들은 주작봉마루에

사계절 넘치는 꽃향기에서 우리 혁명의

명맥을 찾듯이 이어나갈 미더운

계승자, 새 세대들의 삶의 향기를 가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입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봄을 맞이한 우리

농장의 풍경은 참으로 불만

하다. 온실에서는 오이, 부추, 도마들이

푸르싱싱 자라나고 드넓은

밭에서는 시금치, 봄봄배추들이

호호한 작황을 펼쳐놓고있다.

올해 남새농사가 잘되었을

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내 근 30년전 수도시민들

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

시려고 몸소 우리 농장에서

처음으로 지은 온실에 찾아오

서 일일이 농사정형까지

포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작례를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선

박박온실을 토벽식으로 짓고

남새를 심으면 재도 들지

않고 불도 재도 없어도 되

도록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대고조의 불도가니에 세찬 열풍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입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에 봄을 맞이한 우리

농장의 풍경은 참으로 불만

하다. 온실에서는 오이, 부추, 도마들이

푸르싱싱 자라나고 드넓은

밭에서는 시금치, 봄봄배추들이

호호한 작황을 펼쳐놓고있다.

올해 남새농사가 잘되었을

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내 근 30년전 수도시민들

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

시려고 몸소